

## '99건축계를 돌아보며

### Looking Back at 1999's World of Architecture

김득수/삼대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Deuk-Soo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갑자기 주변이 부산스러워지기 시작한다. Y2K 비상이니, 새천년 준비니 하면서 떠들어대는 바람에 평소 연말연시 같은 것에 무심하던 사람까지 마음이 부산해진다. 옆에서 떠든다고 함께 들떠 지내면 예년처럼 또 아쉬움 속에서 연말연시를 보내게 되고 말 것 같아 잠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 즉 건축과 건축계의 올 한해를 조용히 되새겨본다.

1999년 건축계는 시작부터 흥분 속에서 출발했다. 정부가 1999년을 '건축문화의 해'로 지정하자 건축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아, 건축이 문화였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고, 여기저기 관련 행사에 불려다니고 쫓아다니고 하다보니 어느새 건축문화의 해도 그 끝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건축문화의 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의 해'라고 하는 지정 자체가 자칫 전시성, 일과성으로 흐르기 쉽다는 점에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래도 정부가 이렇게까지 배려해주는 것을 감지덕지하며 우리 모두는 혹시나 건축문화의 해에 건축과 건축인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며 은근히 기대를 했었다.

이윽고 건축문화의 해 광파르는 울렸고 보무도 당당하게 그 첫발은 시작되었다. 조직위원회가 결성되고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건축인들이 조직위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찰나, 개인적인 문제로 조직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위원장을 세우고 사태를 수습하느라 또 몇 개월... 시작부터 삐걱거리던 건축문화의 해는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게 저물어 간다.

건축문화의 해와 관련해서 뿐만아니라 생각해보면 올해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그 일들 하나하나를 되짚어보는 것도 뜻있는 일일 것 같다.

우선 올해 연초는 어느 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출발했던 것 같다. 지난해 말 우리 사회는 전체적으로 구조조정과 조직 재편성으로 인해 다소 우울하고 침체된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느 조직, 어느 집단이든지 혼란과 생존경쟁의 어두운 터널을 뚫고나온 지친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것처럼 어려운 구조조정을 통해 상당수의 조직들이 균살을 빼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많은 이들이 묵묵히 희생을 감내해준 덕택이었으리라 믿는다.

또 올해는 다양한 제도의 변화가 있었던 해다. 연초부터 건축법, 주차장법, 주택건설촉진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면서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훨씬 용이해졌다. 여러모로 불합리하던 조항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법 체계를 세우고 정비한다는 행정 당국의 강한 의지에 따라 그동안 어지러웠던 법 조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은 참으로 반가운 뉴스였다.

얼마 전 공공기관이 발주한 턴키방식 대형공사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일부 대학 교수들이 심사과정에서 참가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됐는데, 과연 건축을 배우는 후학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게될지 걱정이 앞선다. 심사위원이라면 당연히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어떠한 외압이나 공세에 휘말림이 없이 공정경쟁의 심판관으로서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심사위원은 학문이 깊은 교수도 중요하지만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예술감각과 기술이 뛰어난 건축사 등 전문가로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하며, 국가공인 기관인 대한건축사협회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풍토가 필요하다.

한편 1999년 건축관련 제도의 개선 중 가장 커다란 것이라면, 무엇보다도 '건축물 사용검사 특별검사원제 시행'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8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에 대해 처음에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했지만, 시행 5개월째에 접어든 지금 매스컴들은 위법건축과 각종 건축부조리 차단 의 지대한 공로자로 이 제도를 들고있어 이의 성공적인 시행을 알리고 있다. 서울시건축사회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건축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건축비리 생산자'에서 '건축비리 및 부조리 감시자'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건축사에 대한 이미지 전환은 물론 이번 기회에 불법건축물이 발 붙일 수 없도록 건축사·시공업체·건축주 모두가 각성하고 법을 지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올해 건축계에는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여러 가지 크고작은 행사가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행사라면 지난 9

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카시아 포럼'이었다. 이 행사를 유치한 우리로서는 우리 나라 건축계가 아시아 건축의 한 가운데 서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세계 건축 속의 한국 건축사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진 셈이다. 건축인들의 참여가 다소 저조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긴 했지만, 아카시아 포럼 개최는 우리 나라 건축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준 행사임에 틀림없다.

올해 건축관련 행사중 또 하나의 커다란 행사는 지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열린 '99한국건축문화엑스포'였다. 국내 최초·최대를 자랑하는 이 행사는 이제까지 있어왔던 건축관련 전시 행사들 보다 그 규모나 짜임새 면에서 월등하게 나았다는 평을 받았다. 이제 건축관련 행사들도 우리 건축인들만의 집안 잔치가 아닌 범국민적 행사로 거듭나야 한다는 교훈을 준 행사였다는 점에서 기억할 만하다.

끝으로 1999년 최대 이슈로는 '건축교육 및 건축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아닐까 싶다. 대한건축학회 주최로 지난달 열린 이 공청회에서는 국가간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국내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돼 건축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건축교육을 국제 기준에 따라 5년제로 바꾸고, 인턴 3년을 거쳐야 건축사 자격을 부여하며, 건축사 면허와 등록자격 개념의 정립, 그리고 건축사의 계속교육 등 국제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있을 것이 예고돼 이에 대한 건축사 개개인의 준비와 대책마련이 절실하게 되었다.

이처럼 올 한해 우리 건축계는 그 어느해 보다도 다양한 변화를 체험했다. 갑자기 어려워진 국가 경제상황에 따른 예기치 못한 환경을 맞이하면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그동안 듣도보도 못한 상황들을 우리 건축인들은 경험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어렵고 힘든 이 같은 상황은 언제 어느 때라도 다시 재현될 수 있으며, 그 때 우리의 모습은 적어도 지금과는 달라져 있어야 함을. 급작스럽게 닥친 곤란 앞에 허둥지둥 갈팡질팡했던 지난해의 우리가 아닌 좀 더 의연하고 당당하게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한해의 끝을 향하고 있는 지금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 본 「기고」란의 내용은 본 협회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